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상전(象傳)’ 산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고(蠱)이니,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백성을 진작시키고 덕을 기른다[山下有風蠱, 君子以振民育德](산하유풍고, 군자이진민육덕). 내가 생각건대, 산 아래 바람이 있으면 초목을 진동시키고 앙욕한다. ‘진(振)’은 ‘맹자’에서 “진작시키고 덕을 베푼다”고 할 때의 진으로, 백성들을 고무하고 떨쳐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치 바람이 초목을 움직이고 진작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기른다[育]’는 것은 그 재주를 기른다고 할 때의 육이다. 덕 있는 사람이 앙욕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마치 산이 만물을 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목이 자라 무성하면 산 또한 깊고 울창해지며, 백성의 덕이 새로워지면 자기의 덕 역시 커지므로 타인과 자신을 아울러 보아야 한다.

육오(六五) ‘상전(象傳)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여 명예가 있다’는 것은 덕으로 잇기 때문이다[‘幹父用譽’, 承以德也](간부유예, 승이덕야).

‘잇는다[承]’는 것은 승계한다는 뜻이 어야 한다. 유(柔)로써 높은 지위에 거하니 창조적인 일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중순(中順)한 덕으로 그 구업(舊業)을 잇고 계승할 뿐이다.

상구(上九)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일을 높이 숭상한다[不事王侯, 高尚其事](불사왕후, 지가중야).

‘상전(象傳), 왕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뜻을 본받을 만하다[‘不事王侯’, 志可則也](불사왕후, 지가중야).

내가 생각건대, 상구는 양으로서 지위가 없는 곳에 거하여 강명(剛明)한 재주를 세상을 위해 쓰지 못하니 이는 고관(蠱蠱)한 상황이다. 도덕을 마음에 품고 있으나 시대를 위해 쓰지 못하여 공업(功業)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품고 있는 뜻만은 본받을 만하다. 이는 그를 다스릴 재주를 가진 사람이 고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 그렇게 하기를 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지, 그가 섬기지 않음이 본받을 만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왕후를 섬기지 않는 것’과 ‘제후를 찾아보지 않는 것’은

의리가 동일하다. 비록 길맞는 지위가 없어도 행할 수 없더라도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곧게 하거나” “옥을 자랑하여 팔리기를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천하를 구제하겠다는 마음은 절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 끝내 섬기지 않고 찾아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윤(伊尹)이 초야에 있으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고, 태공(太公)이 북해(北海)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린 것이 그것이다. 그 때문에 정자는 “이윤과 태공망의 벼슬하기 이전의 상태, 증자와 자사의 무리”라고 보았다.

오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세간에 처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은 모두 비천한 일이다. 세간을 떠나 아무 것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상한 일이다. 아래 다섯 효는 자기 집안일에 부지런히 마음을 쓰지만 상구는 천하의 일조차도 비천한 것으로 보고 하려하지 않는데 자기 집안의 일이라도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는 유자(耆者)의 말이 아니다. 이윤(伊尹)과 여상(呂尙)이 신(莘) 땅에서 농사짓고 위(魏)수에서 낚시할 할 때 어찌 천하를 아울러 신하게 하기 싫어서 자신의 한 몸만을 깨끗이 하려 했는까? 탕왕과 문왕을 만나 함께 천하를 위해 일한 것이 어찌 고상한 것을 버리고 비하한 곳으로 나아간 것이겠는가?

이는 바로 전일에 높이 숭상한 것이 금일의 사업이며, 초야에서 즐긴 것이 요순의 도였고 사업으로 실천한 것이 요순이 백성들의 군주 노릇한 바로 그 도리였으므로 일신상 나아가고 물러난 차이는 있지만 도는 두 가지가 아니다. 아래 다섯 효 모두가 ‘아버지의 일 주관하는 것’이 자기 집안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므로 언급할 만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전부 모를 버리고 윤리를 사라지게 한 뒤에야 본받을 만하다는 것인가? 지위가 없는 자리에 거하여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왕후를 섬기지 않더라도 또한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군주를 무시하는 도리이다. 또 그가 말한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더욱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단은 스스로 세간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지렁이가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지는 못하고, 무리와 함께 거처하고 집에 살며 웃을 입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세간을 떠난 것인가? 한 마디말의 차이에서 생긴 폐단이 도리를 사그러지게 하기에까지 이르니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임(臨)

크게 행동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팔월이 되어서는 흥함이 있으리라[元亨利貞, 至于八月有凶](원형이정, 지우팔월유흉).

“본의(本義)에 “‘팔월’은 하나의 양의 달인 복괘에서 두 음의 달인 둔괘에 이르기까지로 음이 자라고 양이 숨는 때이다. 혹자는 ‘팔월이 하나라 정월로 8월이며 패로는 관(觀)패로서 또한 임(臨)괘의 반대이다’라고 하였다. “문인(門人)이 주자(朱子)에게 “두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하고 묻자, 주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얕의 주장은 주(周)나라의 정월을 기준으로 8월이고, 뒤의 주장은 하(夏)나라의 정월을 기준으로 8월이다. 문왕(文王)이 패사를 지을 당시에 주나라 정월만을 기준으로 하였는지는 알 수 없을 듯하다.

“내가 생각건대, 문왕이 유리에서 역을 연역하던 그 당시는 주나라가 아직 정월을 선포하지 않았고 상나라의 정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이른바 ‘팔월은 복(復)에서 둔(遁)에 이르는 8개월이다’라고 하는 것이주나라 정월을 기준으로 한 8월과 일치한다고 해도 문왕이 주나라 정월을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음양이 소상하는 수로써 말한 것이라 복괘에서 “일이 되어 회복한다”고 한 것과 같은 종류이다. 공자의 [단전]에는 “강이 조금씩 자란다”, “오래지 않아 사그러진다”라고 하였다.

愚謂, 文王易於差里, 方是時, 周末立正, 用商正之時也. 然所謂‘八月 自復至遯之八月’, 是雖周正之八月, 文王非是欲周正, 但以陰陽消長之數而言, 如復卦“七日而復”之類也. 夫子之[象]曰, “剛歸而辰”, 又曰, “消不久也”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2)

논어 해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6편雍야(雍也)

제22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제(齊)나라가 한차례 번도하면 노(魯)나라 정도의 이를 것이요, 노나라가 한차례 번도하면 도(道)가 행하여지는 정도의 이를 것이다.”

[원문] 子曰齊變이면 至於魯하고 魯變이면 至於道라.

[자왈 제일변이면 지어노하고 노일변이면 지어도라.]

[이해] 공자[孔子] 당시 제[齊]나라에는 명리[名利]와 공과[孔果]를 중시하는 폐도정치[廢道政治]의 숲속이 남아있었고 노[魯]나라는 예[禮]를 중시하고 신의[信義][를 숭상하는 선왕[先王]의 유풍[遺風]이 남아있어서 자기 한결음씩만 더 예미풍[美風]을 현양하려 힘써 노력한다면 고대[古代]와 같은 태평성대가 이룩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 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말이다.

제23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모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다면 어찌 모난 그릇이 되겠는가. 어찌 모난 그릇이겠는가.”

[원문] 子曰觚不觚면 觚哉아 觚哉아. [자왈 고불고면 고재아 고재야.]

[이해] 고[觚]는 모서리 진 그릇이다. 고의 모서리가 없다면 고가 될 수 없다 함은 실상과 명칭이 부합되지 않은 것을 뜻하며 임금의 도리를 잃는다면지 신하가 신하의 직분을 잃는 등속에도 하나의 본 보기이다.

제24장

재야[宰我]가 묻기를 “인자한 사람은 비록 거짓으로 일러주는 우물 속에 인자함을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것을 따라 들어가겠습니까?”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어찌 그렇다고 그렇게 가지야 하겠느냐. 군자는 우물 있는 데까지 가는 할 지언정 거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군자를 이치에 맞는 말로 기만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사리분별을 모르도록 만들 수는 없다.”

[원문] 宰我問曰 仁者是 雖告之曰 并有仁焉이라도 其從之也로소이까, 子曰 何謂其然也 曰 君子는 可逝也언정 不可陷也며 可欺也언정 不可罔也니라.

[재야문왈 인자는 수고지랄 정유인언 이라도 기종지야로소이까 자왈 하위기언 아리오 군자는 가사야언정 불가함야며 가가야언정 불가함야니라.]

[이해] 군자는 사물의 본질에 통요 하여 인을 떠나지 않은 까닭으로 도리에 합당한 거 짓을 가장하여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그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다.

제2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군자가 널리 배워 문채[文彩]를 이루고 예로서 그것을 단속해 나간다면 또한 정도에서 어긋나지 않음이 가능할 것이다.”

[원문] 子曰 君子博學於文이요 約之以禮면 亦可以弗畔矣夫인자.

[자왈 군자박학어문이요 약지이예면 역가이불반의부인자.]

[이해] 널리 지식을 탐구하되 예[禮]로서 단속한다는 것은 비록 힘써 체득한 배움이

라도 올바른 법도에 따른 실천과 행동에 맞맞은 조절이 이루어질 때라야 참된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제26장

공자[孔子]가 남자[南子]를 만나보았는데 자로[子路]가 좋지 않아 하니 공자가 맹세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禮]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하늘이 버릴 것이다.”

[원문] 子見南子하시되 子路不說이러늘 夫子矢之曰 予所否者일진대 天賦之하시리라 [자견남자하시되 자로문설이러늘 부자지왈 여소부자일진대 천역자하시리라.]

[이해] 남자[南子]는 위영공(衛靈公)의 부인이었는데 행실이 음탕하다고 소문이 난 여자였다. 남자가 공자를 만나 보고자 청하여 공자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면회였으나 우직한 자로는 공자가 예법에 따라 국군[國君]의 부인에겐 소군[小君]의 예를 갖춰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점이 욕이 된다고 여겨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27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중용(中庸)의 덕이 행위로 드러남은 그야말로 지극 하구나 백성들은 이것을 오래 지니고 있는 예가 드물다.”

[원문] 子曰 中庸之爲德也는 其至矣乎인자 民鮮久矣니라. [자왈 중용지위덕야는 기지의호인자 민선구이니라.]

[이해] 중[中]은 무과불급[武科不及]이고, 용[庸]은 평상을 뜻하며, 천하[天下]의 정도[正道]와 정리[定理]를 가리키는 말이 중용[中庸]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60회)



지난호에 소개한 권준 장군의 손자 권영빈 교수의 자료(① 권준장군 약력-가족사)07.hwp) 가족사항)을 바탕으로 <권준장군 약력>에 이어, <기타>, <가족사항>

과 독립운동>은, (가족) : 부인 이석우(李錫雨) 여사와 2남 1녀-장녀(권태옥權泰玉), 장남(권태후權泰侯), 차남(권태환權泰環)의 순서이며 모두 고인이 되었다. 권태후 선생과 부인 민영숙 여사 사이에 4남이 있다. [항일독립의거기념탑]-경북 상주시 신봉동 산1-1번지, 권준 장군-독립장, 권태후 선생-건국포장, 민영숙 여사-건국포장 등 가족 중 3인이 기록되었다.

(기타자료) 박영만이 지은 ‘광복군’에 할아버지(권준 장군)에 관한 내용이 1개의 장으로 나오며, 중국 중앙군 부사장(副師長:부사단장)으로 항일 토벌전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전멸시킨다는 내용이 다음, 또한 삼촌(권태환)이 살아계실 적에 중국의 남경(南京)을 방문하였을 때, 할아버지가 중국군의 장군복을 입고 출퇴근 하신 것과 과거에 살던 집을 방문한 기억이 있었다고 하였다. 삼촌이 할아버지가 남창(南昌:江西省의 수도), 무한(武漢:湖北省 수도)등지에서도 사령관으로 근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가족의 독립운동 자료로서는, 권태후(1917년생) - 건국포장수여(1977년), 조선의용대원, 중국 중앙군 중일전에 참전, 임정내무부 비서 -1937년 중일전쟁발발로 중국 군관(軍官)학교 특별훈련반의 특별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俊) 장군<12>

■ 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군사교육을 받고, 조선의용대원으로 남창, 광주(廣州:광도성 수도) 등 전투에 참전하였다. 1939년 박남파(朴南坡) 선생의 밀명으로 상해 왜군 점령지에 잠입, 정보수집, 동지포섭, 연락업무 등을 수행 -1943년 임시정부 지령으로 화중(華中)지방에서 정보 수집 등 지하공작을 전개했으며, 임정으로 소환 내무부 비서로 복무 중 광복을 맞았다. 중국 운남성(雲南省) 곤명(昆明) 국립 운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하고 조교를 역임하였다.

참고로, 1937년 노구교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이 일어나 북경대학, 청화대학, 남경대학등이 남쪽 지방인 호남성 장사(長沙)로 옮겨 장사 임시대학을 세우고, 이듬해인 1938년에 다시 운남성 곤명(昆明)으로 내려가 전시 국립 서남연합대학(國立西南聯合大學)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중국군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유도탄, 대륙간 탄도탄 등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른바 ‘삼전(三錢)’이 있는데, 첸산창(전삼강錢三強, 1913.10~1992.6)은 프랑스 파리대학(Sorbonne 대학) 퀴리연구소 1911.12~2009.10)은 미국 M.I.T. 공대와 캘리포니아 공대(Cal-tech) 출신의 항공공학과 항공수학자 그리고 첸웨이창(전위장 錢偉長, 1912.10~2010.7)이 있다.

첸웨이창은 중국의 유명한 역사-철학자 천무(전무錢穆, 1895.6~1990.8)의 조카로 중국의 물리학자이자 역학(力學)과 응용 수학의 대부로 불리는 과학자이다. 그는 청화대 문과에 다니다 일본이 민주를 침략하자 문과에서 이과인 물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대학원 연구시절 일본이 북경을 함락하여 운남성 곤명의 전시

서남연합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캐나다 터론토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후, 청화대와 베이징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그 후 그의 문장에서 자본주의 색채가 짙다고 하여 농촌으로 추방(사방下放)되고,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철강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했다. 세계과학자 대회에서 망명을 우려한 중국 당국은 과학자 대회 참가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출국 당일 낡은 철강 노동자 복장을 입은 첸웨이창은 당시 총리 주언웨이 불려 자신의 양복과 구두를 내주고 다녀오게 했다. 그 후 그는 상하이대, 남경대, 우주항공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의 이름을 딴 다수의 이론과 방정식이 국제 학계에서 공인 받았다 한다.

권준 장군의 장남인 권태후 선생이 중국 운남성 수도인 곤명의 중심에 있는 풍광 수려한 추이후(취호淸湖)공원 북쪽(1.21大街) 주위로 운남대, 운남사대, 운남 민족대 등 대학가 형성, 운남대에서 부친 권준 장군의 전공인 토목공학을 전공한 것과, 취호 서쪽 운남육군강무학교(지금은 ‘雲南陸軍講武學堂博物館’으로 보존, 1909년에 창설한 육군군관학교로서 1909년부터 1928년까지 19기를 배출하였다. 졸업한 학생 수는 약 4,000여명에 달하고 매 학기는 1년반에서 2년 좌우였고 보병, 기병, 포병, 공병 4개 병종으로 나뉘었다. 제 15기에는 귀국학교와 당시 조선, 베트남 등의 유학생들도 모집하였다)이 있는데, 이범석 장군, 김원봉 장군, 권준 장군도 이 학교의 연관이 있다. 권태후 선생의 부인 민영숙(1920년생) 여사는 건국포장수여(1977년)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심보감

■ 권혁재 (본원 중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繼續 省心篇 下

(무고이득친금)이면 不有大福(불유대복)이라 必有大禍(필유대화)이니라.

해설 : 소동과가 말하기를, “까닭 없이 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라.”

참고 : 소동과(蘇東坡 : 1036 - 1131)은 북송(北宋)때의 문인으로 이름은 식(軾), 호는 동파(東坡)이며 당송 팔대가(唐宋 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康節邵先生이 曰(강절소선생이 왈) 有人(유인)이 來問卜(래문복)하되 如何是禍福(여하시화복)고 我斷人是禍(아유인시화)이요 人斷我是福(인휴아시복)이니라.

해설 :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나에게 자기 운수를 묻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 화이며 복인가? 내가 남을 해롭게 하면 이것이 화(禍)요, 남이 나를 해롭게 하면 이것이 복(福)이니라.”고 하였다.

참고 : 蘇→개어날 소, 坡→언덕 과, 節→마디 절, 康→편안 강, 邵→땅이를 소, 문복(問卜)→ 운수를 묻는 것, 즉 점을 보는 것,卜→점질 복, 虧→이치러질 휴

●大廈千間(대하천간)이라도 夜臥八尺(야외팔척)이요 良田萬頃(양전만경)이라도 日食二升(일식이승)이니라.

해설 : 큰집이 천 간(千間)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사방 여덟 자 뿐이요, 좋은 농토가 만 경(萬頃)이라도 하루에 먹는 것은 겨우 두되 뿐이다.

●久住令人賤(구주영인천)이요 頻來親也疎(빈래친야소)라 但看三五日(단간삼오일)에 相見不如初(상견불여초)라.

해설 :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여기고, 자주오면 친한던 것도 멀어 지느니라. 오직 사흘이나 다섯 사이언데도 서로 보는 것이 처음만 같지 않느니라.

참고 : 廈→큰집 하, 臥→누울 와, 升→되 승, 頃→백이랑 경, 住→살 주, 賤→천할 천, 頻→자주 빈, 看→볼 간, 久住(구주)→오래 머물러 있는 것, 頻來(빈래)→자주 오는 것, 不如初(불여초)→처음만 같지 못한.

●渴時一滴(갈시일적)은 如甘露(여감로)로 醉後添盃(취후첨배)는 不如無(불여무)니라.

해설 : 목이 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단 이슬과 같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참고 : 甘露(감로)→단 이슬, 添盃(첨배)→잔을 더하는 것, 醉→취할 취, 迷→미혹할 미, 희미할 미,

●酒不醉人人自醉(주불취인인자취)요 色不迷人人自迷(색불미인인자미)니라.

해설 :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색(色)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유혹 당하는 것이다.

●公心(공심)을 若此私心(약차하심)하면 何事不辨(하사불변)이며 道念(도념)을 若何情念(약동정념)이면 佛多時(불다시)니라.

해설 : 공(公)을 위하는 마음이 만약 사(私)를 위하는 마음과 같다면 무슨 일에 서든지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할 것이며, 도(道)를 행하는 마음이 만약 남녀의 정(情)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면 성불한 지도 이미 오래일 것이니라.

참고 : 공심(公心)→공(公)을 위하는 마음, 사심(私心)→사를 위하는 마음, 辨→분별할 변→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성불→成佛(부처님이 되는 것), 佛→부처 불.

●龐參先生曰(염계선생왈) 巧者言(교자언)하고 拙者默(졸자묵)하며 巧者勞(교자노)하고 拙者逸(졸자일)하며 巧者賊(교자적)하고 拙者德(졸자덕)하며 巧者凶(교자흉)하고 拙者吉(졸자길)하나니 嗚呼(오호)라 天下拙(전하졸)이면 刑政(형정)이 徹(절)하여 上安(상안)하순(하순)하며 風清(풍경)絶(정종폐절)이니라.

해설 : 염계선생이 말하기를, 교자(재주 있고 꾀 많은 사람→즉 교활한 사람)는 말을 잘 하고, 졸자(재주 없고 어리석은 사람)는 말이 없으며, 교자는 수고로우나 졸자는 한가하다. 교자는 패악하고 졸자는 덕성스러우며, 교자는 흉하고 졸자는 길하다. 오호라(아야)! 천하가 졸하면 정치가 철저히어서 임금은 편안하고 백성은 잘 복종하며, 풍속은 맑고 나쁜 습관은 없어지느니라.(고)하였다.

참고 : 염계(龐溪)→성은 주(周), 이름은 돈이(敦)염계는 그의자다. 北宋의 儒學者(朱學-朱子學)의 시조로서 대극도설(大極圖說)과 통서(通書)를 저술하였다. 교자→교(巧)→재주있고 꾀 많고 교활한 사람, 졸자拙者→재주없고 구변없는 어리석은 자 즉 열열한 사람, 默→잠잠할 묵, 고요할 묵, 風清→풍속이 맑아지는 것, 폐절→弊絶=나쁜 습속이 없어지는 것.